

“ 명절로 문화 ”

박희옥/ 전남 순천시 용당동

「내 어린시절」 어머니는 명절이 다가오면 늘 걱정스러웠다. 가난한 살림에 종부(宗婦)로서의 무거운 짐을 작은 어깨에 지시고 묵묵히 가시는 모습을 늘 보면서 자랐다. 명절이 잡힐 듯 다가오면 시장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생선에 과일에 평소엔 보지도 먹지도 못했던 음식을 장만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고 준비한 음식들이 혹 남의 손이라도 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시며 제사상에 오르기까지 쏟은 정성은 어디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을만큼 가득하였다.

명절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성묘길에 아버님과 삼촌들 자식들 손에 들려주신 예쁜 음식 바구니에 그 동안의 조바심과 힘든 시간도 함께 들려 보내셨을지도 모른다.

그때를 생각하면 요즘은 세태가 변해도 너무 변했다. 등산복 차림으로 예초기 메고 산소가서 벌초하고 흰 종이 깔아 놓고 북어 한 마리에 소주 한잔 따라 놓고 절하면 성묘 끝이다.

간편해서 좋다. 그만큼 세태가 변하였으니 조상을 대하는 후손들의 태도를 달리 흠잡고 욕 할수도 없다. 이렇게 명절문화가 바뀌었으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?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일, 여가를 즐기는 일, 그동안 밀렸던 일 하기, 아님 그동안 못잔 잠 보충하기...

다 좋은 일이고 내일을 위한 충전의 좋은 기회다.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고향이 있어도 못가는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. 이주 노동자들, 탈북자들, 유학생들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...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의 남은 것을 조금씩 나누면 어떨까? 그것이 시간이어도 좋고 회사에서 받은 명절 보너스 같은 물질이어도 좋다. 우리의 작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다가가고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만끽하며 명절을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.

그것이 바뀐 명절문화가 우리에게 준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져 본다. 우리 모두 행복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 Y



나의의견 상품은 성보화학(주)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.

10월호 주제 「가을단풍」

원고 3~5매 정도(A4 2/3)의 분량으로 매월 25일전까지 우편 또는 kcpark@koreacpa.org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월동 병충해 방제 전문약

쿠무러드

임상수화제

성보화학주식회사
TEL.(02)753-2721

BASF
The Chemical Company